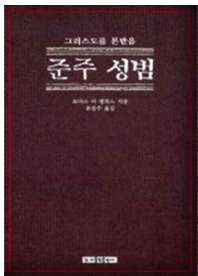




## 열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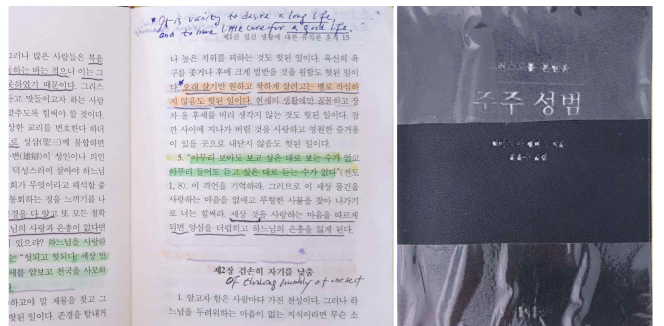
# 15세기 수도사들의 경건지심을 배우다

[2020 그리스도인 문화기행① 도서탐방]



스리랑카 선교사 생활 2년째인 2001년 4월에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귀국 후 수원 <말씀의 집>에서 9박 10일의 피정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침묵 훈련을 받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엄청난 고민 속에 피정을 마치며 그곳에서 『준주성범(遵主聖範, De imitatione Christi)』을 샀습니다. 이 책을 개신교에서 번역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로도 읽어 보았지만 『준주성범』의 번역이 훨씬 저에게는 마음에 크기와 닿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 온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당일 큐티 본문과 함께 『준주성범』을 한 장씩 읽고 침묵에 들어가 ‘듣는 기도’ 훈련에 몰두하였습니다. 새벽마다 밀려오는 졸음을 쫓으며 힘겹게 ‘듣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즈음, 어느 새벽 침묵 중에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영근, 너 참 고생이 많다. 네가 내 음성을 한 번 들어 보려고 새벽마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네 모습이 나는 너무 좋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없겠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강물 같은 평안이 밀려 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날마다 큐티 본문과 함께 『준주성범』을 읽으며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침묵의 시간은 가장 행복한 데이트 시간이 되었고, 저의 더러워진 영혼을 더없이 맑게 해 주는 좋은 영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매일 새벽 큐티 묵상과 『준주성범』을 1년간 카톡으로 나누었습니다. 몇몇 분들의 반응이 꾸준히 좋았고 때로는 상당수가 큐티 내용보다 『준주성범』의 글귀를 읽고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주성범(遵主聖範, De imitatione Christi)』의 저자인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1380-1471)는 평생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392년, 네덜란드 데벤터(Deventer)의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에 들어가 공부하며 신앙과 공동체의 정신을 배우고, 1399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1413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429년에는 수도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15세기 네덜란드 ‘공동생활 형제단’의 수도사들을 위해 그가 경건 생활의 지침서로 쓴 것입니다. 1427년 경 완성된 이후 『준주성범(遵主聖範)』(그리스도를 본받아)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초판 인쇄 후 1500년 이전까지 50번 이상 재판되었고, 1779년에는 대략 1,800여 종의 판본과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후 책이 얼마나 많이 인쇄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더불어 경건 문학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기독교 3대 고전’으로 꼽히며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 존 뉴턴, 토머스 머튼, 디트리히 본회퍼, 마더 테레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 다음 가는 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야 하는 요즘 『준주성범(遵主聖範)』(그리스도를 본받아)을 묵상하며 15세기 수도사들이 몸소 실천했던 경건생활의 모범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글쓴이: 박영근 선교사]  
현재 스리랑카에서 사역 중이며 TIM 두란노 소속으로 1999년부터 온누리 국제학교를 13년간 섬겼고 지금은 아내 추행란 선교사와 함께 현지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BEE 세미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 박영근 선교사, 정라: 정주영, 편집: 최선]

BEE의 보석찾기-기도 테이블 편

10. 서남아시아 기도 테이블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우리 서남아시아 기도 테이블 가족들! 함께 서로 얼굴을 본다는 기쁨과 일주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즐겁고 은혜로운 영상기도였어요. 모두 기쁨의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신경진 테이블 리더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 5월 9일(토) 6:30 한동홀에서 BEE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테이블이 참석하지 않고 동아프리카, 본부/동북아, 중국, 서남아 테이블만 참석하고 나머지 테이블을 유튜브를 통해 영상 기도모임에 참여합니다. On/Off-Line으로 드리는 기도모임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